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에 대한 연구*

민 혜 리**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좋은 강의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로 판단하는지 검토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강의평가의 기준을 찾는 데 있다. 현재 수업 종료 후 실시되는 강의평가는 개별 강의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수자는 여타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평가 결과를 강의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교·분석의 기준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개별 강의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설문조사는 학부생 887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15일~7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성별, 단과대학별, 학년별로 나누어 표집되었다. 이들의 배경 특성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학생이 296명으로 33.4%였으며, 남학생은 591명으로 66.6%였다.

소속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가 95명(10.7%), 사회대 245명(27.6%), 자연대 191명(21.5%), 공대 245명(27.9%), 사범대 111명(12.5%)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5명 (8.5%), 2학년 174명 (19.6%), 3학년 266명 (30.0%), 4학년 372명 (41.9%)이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사용한 조사 항목과 설문 문항은 강의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을 종합하여 구체화하였고, 총 12개의 조사 항목과 38개의 설문 문항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에서 설문 결과를 좋은 강의 경험 유무, 조사 항목별로 본 좋은 강의의 특성, 설문 문항별로 본 좋은 강의의 특성, 연구의 의미의 4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분석하겠다.

1. 좋은 강의 수강 유무

구 분	빈 도	백분율
좋은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	799	90.1
좋은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	80	9.0
무응답	8	0.9
전 체	887	100.0

〈표 1〉 좋은 강의 경험 유무

* 본 연구는 2003년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의 내부 연구 과제이다.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선임연구원

| 특집 | 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90.1%에 해당하는 799명이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 항목별로 본 좋은 강의의 특성

조사 항목 중에서 중요도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교수자가 가진 학자로서의 전문성(4.45)이며, 강의 결과 나타난 자신의 변화관련 요인(4.14)과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 요인(4.06)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요인은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당 강의를

좋은 강의로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조사항목 중에서 강의 내용(3.99), 수업 운영기술(3.91), 평가(3.76), 과제(3.7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3.70)이 평균 3.5점 이상이었고 학생 본인의 노력(3.44), 동료 학생의 영향(3.35), 시설 · 환경요인(3.31)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3. 설문 문항별로 본 좋은 강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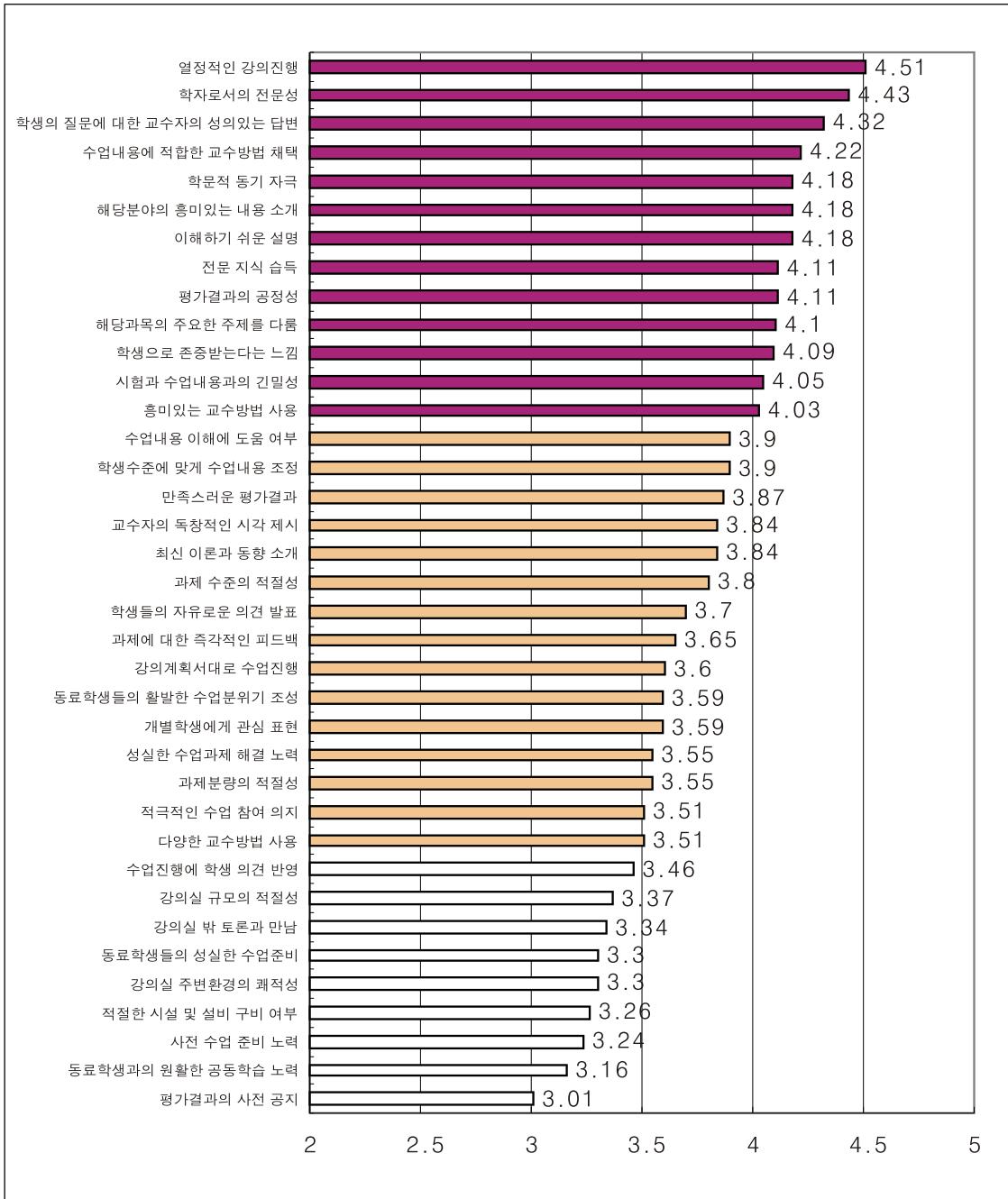
설문 문항별 응답에서 학생들은 좋은 강의라는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수자의 열정적인 강의 진행을 택하였다. 그 외에 학생들에 의해 평균 4.0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여 대체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교수가 가진 학자로서의 전문성,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수자의 성의 있는 답변, 수업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방법 채택, 수업 결과로 학문적 동기가 자극되었는지 여부, 해당 분야의 흥미 있는 내용 소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수업 결과로 전문 지식이 습득되었는지 여부, 평가 결과의 공정성, 해당 과목의 주요한 주제 다루기, 학생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시험과 수업 내용과의 긴밀성, 흥미 있는 교수 방법 사용이었다.

교수자의 수업 운영기술 요인이 학생들에 의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뒤를 이어 교수자의 학생에 대한 태도, 강의 내용, 평가, 강의 결과가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조사 항목 구분	좋은 강의	
	평균	표준편차
학자로서의 전문성	4.45	0.76
강의 결과 나타난 자신의 변화	4.14	0.78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	4.06	0.68
강의내용	3.99	0.62
수업 운영 기술	3.91	0.58
평가	3.76	0.71
과제	3.73	0.71
교수자와 학생의 상호 작용	3.70	0.73
학생 본인의 노력	3.44	0.82
동료 학생의 영향	3.35	0.80
강의실 시설 및 설비	3.31	0.86
강의실 환경	3.30	0.94

〈표 2〉 조사 항목별 중요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에 대한 연구



〈그림 1〉 좋은 강의의 설문 문항별 중요도

4. 연구의 의미

학생들의 좋은 강의의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결과는 조사 항목 중에서 교수 요인이 여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강의 결과 나타난 자신의 변화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항목은 학생 요인과 시설·환경 요인이었다.

교수자 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은 강의에서 교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교수자 요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교수자가 가진 학자로서의 전문성이었고,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 운영기술이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강의 결과에서 나타난 학생 자신의 변화 요인이 높게 평가된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이 강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동기가 자극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부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생각하는 여부에 따라, 해당 강의가 좋은 강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

가장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시설·환경 요인과 학생 요인은 각각 강의실 시설 및 설비(3.31), 강의 실 환경(3.30), 학생 본인의 노력(3.44)과 동료 학생의 영향(3.35)으로 평균 3.5점 이하의 점수였다. 이 중에서 시설·환경 요인은 강의에 영향을 주는 여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강의실의 시설이나 환경은, 교수자와 관련된 요소나 강의 내용 및 강의 진행 과정의 질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요인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대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이 수업 결과를 통해 지식이 습득되고 학습 동기가 자극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면서도, 수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노력과 수업 참여 등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서 수업 내용과 수업 진행 과정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업의 주체가 가지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